

류진 KBS '속아도 꿈결' 종영, "해맑은 수다쟁이 변신 만족"

착하지만 웃대 없는 남편 '금상백' 역

"사랑 넘쳐나는 현장...서로 격려·칭찬"

"속아도 꿈결"은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제작진과 배우들이 너무 돈독해져서 앞으로 평생 같이 가겠다고 생각한 드라마가 됐죠."

큰 키에 신사 같은 이미지의 배우 류진이 KBS 1TV 일일드라마 '속아도 꿈결'에서 정 많고 착하지만, 웃대 없고 팔랑귀인 전업 주부 '금상백'으로 완벽 변신했다.

최근 서면으로 만난 그는 종영 소감으로 "무척 서운하다. 이번 드라마는 함께한 동료 선배 배우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시원함보단 설움이 너무 크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종영한 '속아도 꿈결'은 두 집안이 부모의 황혼 재혼으로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다. '금종화'(최정우)의 가족과 '강모란'(박준근)의 가족들이 만나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 가족 드라마다.

"금상백" 캐릭터 준비? 절대 멋있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류진은 금종화의 세 아들 중 장남 '금상백' 역을 연기했다. 금상백은 해맑고 사람 좋지만 팔랑귀로 사업을 대차게 맡아먹고 백수가 된 전업 주부 남편이다. 기존 작품들에서 재벌

가나 실장님 같은 역할을 주로 했던 류진의 또 다른 변신이다.

그는 "캐릭터 준비에서 외적으로 절대로 멋있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며 "심지어 촬영 때 제가 멀쩡해 보이면 감독님이 괜히 머리를 흐트러트리 정도였다"고 웃었다.

"머리 스타일도 레고 헤어스타일처럼 좀 더 해맑아 보이려고 했고, 의상도 1990년대 느낌의 정장이나 추리닝을 입으려고 했어요. 예전 작품들에서 무게감 있게 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해맑은 수다쟁이 느낌을 주기 위해 빨리 말하려고 노력했죠. 빨리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캐릭터적으로는 작가가 처음에 류진에게 미안해하기도 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상백이가 많이 나오지만 상백이만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커플들의 멜로나 아픔들을 받쳐주는 부분들이 많아서였다"며 "그러나 상백이 중심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이어주는 메신저 같은 캐릭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보여준 캐릭터들과 워낙 달라 처음엔 싱크로율을 걱정했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정규 감독과는 KBS 2TV 드라마 '국가가 부른다' 인연으로 함께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직 방송에 비춰지지 않았던 저의 다른 모습들, 허당끼나 코믹하고 순수한 모습 등을 감독님께서 알고 캐스팅했지만 이전에 맡았던 캐릭터들과 많이 달랐기에 감독님과 저 모두 걱정이 됐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90% 싱크로율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부분이 닮았어요."

드라마는 황혼 재혼을 소재로 다양한 가족군이 나온다. 그는 "현장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며 "여태까지 많은 작품을 하면서 좋은 작품과 좋은 팀들이 많았지만 이런 팀은 처음이었다. 배우들 모두 항상 서로 격려와 칭찬, 사랑이 넘쳐나는 현장이었고 그게 드라마에 서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모이는 장면이 쉽지 않은데, 모이면 신나고 재밌었죠. 옥상에서 '오민희'(윤혜영)의 인터뷰를 찍는 장면은 추운 날 고생하며 찍었지만, 정말 즐거웠죠. 오랜 시간 그 장면을 찍으며 진짜 엄마, 아빠가 되고 형제, 오누이가 됐다고 할 만큼 서로 친해지고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 날이었어요."

"두 아들에게 좋은 친구이자 존경받는 아빠...사랑꾼 금상백 모습 배워"

아내 '인영혜' 역의 박탐희와의 호흡은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을 통해 박탐희 배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라는 것을 알고, 많은 것

을 배웠다"며 "덕분에 진짜 부부처럼 서로 믿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호흡을 맞춰갔다"고 칭찬했다.

또 박탐희를 비롯해 동료 배우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돌아봤다. 그는 "'속아도 꿈결'은 인간적으로도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은 점을 배우고 깨닫게 된 작품"이라고 했다.

"박탐희 배우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마음을 열면 제 연기와 작품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동생 '금상구' 역) 임형준 배우도 내성적이고 차가운 줄 알았는데, 제게 먼저 연락하고 다가오는 걸 보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 보려고 노력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했죠."

류진도 두 아들을 둔 가장이다. 그에게 어떤 가장이냐고 묻자 "상백이도 애들에게 다정다감한 것처럼 저도 애들에게 좋은 친구로 존경받는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며 "노력을 인정받았는지 애들이 저만 보면 무조건 안겨서 아내에게 칭찬도 받는다"고 자랑했다.

"한편으로 상백이 같은 사랑꾼은 아니에요. 마음은 상백이와 같지만, 표현 방법이 다르죠. 저도 타고난 애교가 있지만, 표현을 자제하려고 해서 무심해 보이는 반면에 상백은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 상백이한테 배운 부분도 있어요."

류진은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했다. "드라마가



끝난 지금, 예전 작품 속 역할들을 보며 저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싶은 정도로 이제 상백이스러워졌다"고 웃었다.

"상백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부분도 있고,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작품을) 굳이 꼽자면 요즘 장르물이 많은데 장르성이 짙은 작품에 도전하고 싶어요. 스텝이든 공포든 최근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처럼 개성이 강한 장르물을 해보고 싶죠. 악역이든 선한 역

이든 상관없이 장르물에서 센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1996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어느새 25년차 배우가 된 그는 "목표는 많은 배우가 그렇겠지만, 오래로 꾸준히 연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적으로도 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류진이라면 무조건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인성으로 팬층은 배우가 되고 싶죠."

뉴스

BTS-콜드플레이 '마이 유니버스' 영국차트 3위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밴드 콜드플레이의 협업곡이 세계 양대 팝 차트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오피셜 차트는 1일(현지시간) BTS와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최신 싱글 차트에서 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1위는 에드 시런의 '시버스'(Shivers), 2위는 엘튼 존과 두아 리파의 '콜드 하트'(COLD HEART)다. BTS가 기록한 3위는 앞서 '다이너

마이트'와 '버터'로 세운 이들의 역대 최고기록과 같다.

두 곡이 전체 가사가 영어로 이뤄진 영어 곡인 것에 반해 '마이 유니버스'에는 한국어 가사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한국어 가사가 많이 포함된 노래가 오피셜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 유니버스'는 오피셜 차트의 세부 차트인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를 비롯해 오피셜 싱글 세일즈, 오피셜 피지컬 싱글 차트에서는 정상을

BTS 자체 최고 기록 유지

차지했다. 오피셜 차트는 앨범과 싱글을 포함해 50여 개의 차트를 집계한다. 이 중 오피셜 싱글 차트는 스트리밍과 음반 판매량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곡의 순위를 매긴다.

지난달 24일 발매된 마이 유니버스는 1주간 디지털 다운로드와 CD로만 총 2만7000 건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가운데 다운로드가 2만1400건이 다운로드됐다.

마이 유니버스의 3위 등극으로 함께 노래를 부른 콜드플레이는 2017년 '섬실 저스트 라이크 디스'(SOMETHING JUST LIKE THIS) 이후 약 4년 만에 오피셜 싱글 차트 톱 3에 안착했다. 두 팀의 협업은 BTS가 제안하며 시작됐으며 한국어 가사를 넣자고 제안한 것은 콜드플레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콜드플레이는 지난 4월 내한해 BTS와 만나 이 곡을 완성했다. 한편 '마이 유니버스'는 발매 후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2000에 3위로 진입했다. 일본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는 정상을 차지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은 오는 5일 공개된다.

넷플릭스 '스위트홈'·'무브 투 헤븐', AACA 본상 후보

올해 12월 싱가포르 개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과 '무브 투 헤븐'이 올해 AACA(Asian Academy Creative Awards) 본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4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스위트홈'과 '무브 투 헤븐'은 2021 AACA 내셔널 위너(National Winner)로 선정돼 본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AACA는 한 해 아시아 콘텐츠 시장을 리브하고 시상하는 아시아 최대의 콘텐츠 시상식으로 올해 12월 2-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매년 배우, 드라마, 예능, 브랜드 콘텐츠, 다큐멘터리 분야 등의 수상자를 발표한다. 지난해 AACA에서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방법이' 각각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 부문과 최고의 오리지널 각본상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교 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틀 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 '스위트홈'은 감독상(이응복), 여우주



연상(이시영), 여우조연상(고민서), 남우조연상(이도현), 시각특수효과상 5개 부문에 선정됐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유품정리사 그루와 그의 후견인 상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이사를 도우며 그들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남

은 이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무브 투 헤븐'은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 상, 남우조연상(이재훈) 2개 부문에 올랐다.

'스위트홈'과 '무브 투 헤븐'이 AACA 최종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뷔 6주년' 트와이스, 정규 3집·투어 깜짝 발표

하반기 맹활약 예고

걸그룹 트와이스가 하반기 맹활약을 예고했다.

트와이스는 첫 영어 싱글 '더 필즈'(The Feels) 뮤직비디오 말미에 등장한 스케줄 포스터를 통해 하반기 일정을 깜짝 발표했다.

2일 포스터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이달 데뷔 6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

고 다음 달 세 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 한 뒤, 네 번째 투어를 연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 필즈'는 국내외 각종 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인기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기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해외 35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차지해 자체 기록을 새로 썼고 미국에서도 자체 최고 순위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시간 신곡 뮤비는유튜브 조회 수 1328만 회를 돌파했고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2위에 올랐다.

'은밀한 뉴스룸' 최진실·조성민 유족, 건물 분쟁 조명

22억 상당 건물

성민의 유족 간 재산 분쟁 뒷이야기가 밝혀졌다.

2일 방송된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고 최진실 13주기를 맞아 최진실 사망에 이어 세상을 떠난 동생 고 최진영, 2013년 사망한 전 남편 조성민까지 가족사가 재조명됐다.

2020년 최진실의 어머니가 조성민의 아버지를 상대로 불법 점유권 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22억 상당의 건물이 조성민 사망 후 최진실

의 자녀인 최환희와 최준희 남매에게 공동 상속됐다.

해당 건물에는 고 조성민의 부모가 20년 넘게 살았다. 실거주 인정으로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고 조성민의 부모가 받았으나, 상속으로 건물 관리와 세금 문제는 남매의 후견인인 최진실 어머니가 해야 해서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최진실 어머니는 조성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최진실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조성민 부모는 퇴거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건물 소유주도 다른 이로부터 상태로 알려졌다.

